

KIA 프로야구 정규시즌 우승... 'KS 불패 신화' 있다

7년 만에 우승 한국시리즈 직행
KS 1·2·5·6·7차전 홈에서 경기
12번째 통합 우승 절호의 기회
남은 7경기 김도영 40-40 관심



'초보 사령탑' 이범호 (43) 감독이 이끄는 KIA 타이거즈가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3·6·18면〉

지난 17일 2위 삼성이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에서 4-8로 지면서 KIA의 우승이 확정됐다. 매직넘버 '1'을 기록하고 있던 KIA는 이날 SSG와의 원정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지만, 삼성의 패배로 남은 숫자를 지우고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따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이룬 정규시즌 우승이다.

앞서 KIA는 김기태 감독 체제였던 2017년 87승 1무 56패(승률 0.608)를 기록하면서 두산의 추격을 따돌리고 정규시즌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이어 한국시리즈에서는 두산베어스를 4승 1패로 제압하면서 통합 우승을 이뤘다.

전신 해대 시절을 포함하면 KIA는 단일리그로 진행된 해를 기준으로 역대 7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이뤘다. KIA는 1991·1993·1996·1997·2009·2017년에 정규시즌 순위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다.

KIA는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도 가지고 있다. KIA는 앞서 11번 한국시리즈에 진출했고, 이해 가을 모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스프링캠프 중반 'KBO 첫 80년대 생 감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사령탑에 선임된 이범호 감독은 '초보 감독' 우려를 지우고 '우승 감독'으로 우뚝 섰다.

윌 크로우, 이리리, 윤영철, 제임스 네일 등 선발 투수가 무려 4명이나 이탈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팀을 이끈 이범호 감독은 탄탄한 불펜진과 '신구조화'가 돋보인 타선의 힘으로 1위 질주를 이어갔다.

지난 8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5-2 승리를 거두고 80승에 선적했던 KIA는 17일 마침내 매직넘버를 다 지우고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2017년 잠실에서 한국시리즈 우승을 확정했던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SSG랜더스필드에서 프로야구 2024 KBO 리그 SSG 랜더스와의 경기 종료 뒤 열린 정규리그 우승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는 챔피언스필드에서의 첫 '우승 삼패인'을 준비한다.

올 시즌 한국시리즈는 1-2차전과 5-7차전이 1위 팀인 KIA의 안방에서 펼쳐진다.

앞서 KBO는 한국시리즈 5-7차전을 중립 구장인 잠실구장에서 치렀지만, 정규시즌 우승팀에 홈 이점을 주기 위해 2021시즌부터 한국시리즈 홈 편성방식에 변화를 줬다.

'V11'에 빛나는 타이거즈는 1987년에만 무등경기장에서 한국시리즈 추포를 터트렸고, 남은 10번의 우승은 상대 팀 안방이나 중립구장인 잠실에서 이뤘다.

한편 최악의 선발진 부상 위기를 딛고 정상에 선 KIA는 19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두산과의 경기 포함 남은 정규시즌 7경기에서 '기록' 도전을 이어간다.

21일 NC, 23·24일 삼성, 25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이어 27일 한화, 28일 롯데와의 방문 2연전을 남겨둔 KIA는 2017년에 달성한 '87승' 경신을 노린다. 타석에서는 김도영이 '40홈런-40도루' 도전에 이어간다. 김도영은 지난 17일 KT전에서 멀티포를 장식하면서 37홈런, 39도루를 기록하고 있다. 양현종은 10년 연속 170이닝 기록에 3.2이닝을 남겨냈다. 유격수 박찬호는 첫 골든글러브를 향한 어필 무대를 이어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폭염에 지치고 아플까 조마조마 답답한 마음을 야구가 달래줬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추석 밥상 민심

광주·전남 지역민은 폭염과 쌀값 폭락, 프로야구 KIA타이거즈 정규시즌 우승 등을 추석 밥상 대화 주제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18일 "지역민들은 폭염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걱정이 컸고, 고향팀인 KIA의 프로야구 시즌 우승을 함께 축하했다"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무더위 속에 맞은 추석이 삶터도 시장도 모두가 시들했다"면서 "활기는 예전만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가을 더위에 내년을 걱정하는 염려가 더 역력하다. 쌀값-한우가격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폭염보다 뜨겁기만 했다"고 소개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불안을 호소하는 지역민도 많았고, 전남지역에서는 쌀값에 대한 걱정이 컸다.

같은 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응급실 뱅뱅이 등 의료대란, 독립기념관장 친일 논란 등 국정파탄과 무능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격렬한 분노와 반발이 심각할 정도였다"면서 "민주당은 무엇하고 있느냐는 질책도 많았다"고 전했다.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쌀값이 폭락하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농민

들의 절규가 가장 많았다"며 "이상고온으로 벼별 구 밀도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심각해 힘들어하시는 농민도 많았다"고 전했다.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의 우승 소식은 추석 연휴를 뜨겁게 달구었던 희소식으로 손꼽혔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호남, 타이거즈, 민주당은 공동운명체이다. 기아가 잘하면 호남이 풍족고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민심을 전했다.

광주·전남의 해묵은 현안에 대한 지역민의 절의도 많았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광주 서구) 의원은 "군공항·탄약고 이전, 광주지하철 공사 지연 등 산적해 있는 사업의 빠른 진행을 요구하는 시민이 많았고, 여야가 민생에 있어서만큼은 협력해야 한다는 충고도 들었다"면서 "피부로 와닿는 민생의 어려움을 추석 민심을 통해 재차 확인했고 국회에서 여야가 민생만큼은 협력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서용진(비례) 의원은 "춘각을 다루는 환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의료대란을 풀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늘 35도 마지막 폭염 내일부터 가을 재촉 비

광주·전남에 유례없는 추석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부터 한낮 무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7면〉

다만 이달 말까지 한낮 최고기온은 30도를 넘나들 것으로 보여 평년의 가을 기온으로 회복하는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이 33~36도까지 치솟겠으며, 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20일 이후 기온이 차차 내려가겠다"고 18일 예보했다.

서해안 부근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와 기압골의 영향으로 19일 오후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에 30~80mm의 비가 내리겠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등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다.

비가 내린 뒤 폭염은 다소 누그러져 20일과 21일 낮 최고기온은 28~31도에 분포하겠다. 습도가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도 태양열이 차단되면서 현재 폭염경보 수준인 폭염특보는 서서히 완화될 전망이다.

비는 22일까지 내리겠고, 이후 최고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다만 평년 9월 최고기온(27.1도)보다는 여전히 2-3도 가량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10월까지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한덕수 총리 "전남 국립의대 적극 지원"	▶2면
광주FC, AFC 챔피언스리그 요코하마 7-3 대파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남원 김병중 미술관	▶22면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함양 고강도 레티놀이 분기당
펼쳐 주름 용출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40~50세 성인 여성 (대상) 2019.08.16~10.17 12주간(10주) 임상실험 결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